

은퇴 후 창업, 공공기관·지자체 도움 받아라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퇴 이후 노후자금과 생계를 위해서는 창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생계형 창업이 성공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 한 집 건너 치킨집이고 편의점인 상황에서 실패율이 성공률보다 훨씬 높다.

이런 경우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창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실패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은퇴 이후 창업자들의 선호 아이템은 치킨집과 호프, 카페 등 음식점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이들은 창업계의 레드오션으로, 폐업하는 1순위 아이템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치킨집,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음식·숙박업은 공급초과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인기 아이템 식당·호프집도 정부지원 가능=생계형 창업자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 음식·숙박업이다. 은퇴자가 창업을 고려한다면 이 업종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제업종이 비록 포화상태라 하더라도 상권별, 기업별로는 차이가 있어 실패를 단정할 수만은 없다.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종으로 창업할 때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자영업 창업을 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용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 금리는 연 3.27%(변동금리) 수준이다.

◇제2인생 설계, 중기청 시니어 창업지원

불안감 줄이고 실패율 낮출수 있어 안정맞춤
소상공인진흥공단, 식당·호프집 창업 지원
중기청 시니어 창업지원서 제2인생 설계를
아이디어 있다면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용

원 '맞춤' = 중소기업청에서는 퇴직 후 창업을 통한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니어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니어 창업지원사업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과 네트워크, 전문성을 활용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창업교육은 올해 1300명 규모로 80시간 내외의 창업스쿨을 운영한다. 지원자의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세무, 회계, 노무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전국 18개 시니어 창업센터에서 창업공간과 상담 자문, 세미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용=1인 창조기업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은퇴자라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무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1인 창조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전국에 60개 설치돼 있다.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등 사업과 전반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창업전문가들은 "창업에 대한 막연한 욕심과 일시적 유행 아이템 대신,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유망성이 있는 아이템을 신중히 따져보고 선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창업센터에 컨설팅하거나 가능한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선배님 은퇴후 창업방법 알려주세요

아직 시작 안했나, 공공기관 컨설팅 받아



조계현 소장의 **특 특** 창업 이야기



창업트렌드 메이킹 프로세스

요즘 유행하는 창업아이템은 뭐지? 요즘 창업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창업트렌드이며 이는 곧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창업트렌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창업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예비창업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창업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외식시장의 창업트렌드는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분사, 개인외식사업자, 외식전문가, 창업컨설팅사, 식품제조회사, 식품유통회사 그리고 창의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예비창업자들이 주요 '트렌드 메이커'가 된다. 이들은 기존 창업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미개척 분야나 틈새시장을 찾아내어 시장을 공략하거나 기존 시장의 메뉴나 시설, 서비스 등을 분석하여 더욱 강력하고 차별화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인다. 또한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이질적인 업종, 메뉴, 서비스 간의 결합과 변형을 통해 아이템의 형태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꾀한다.

이렇듯 다양한 회사와 개인들이 만들어낸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아이템들이 시장에 런칭되면 고객이라는 절대 심사위원들을 만나게 된다. 고객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만족도나 재방문율이라는 수치로 아이템 런칭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알려준다. 그 수치가 낮아지면 해당 아이템은 창업트렌드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조기에 생명력이 끝나게 되고 그 수치가 높아지면 창업트렌드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이 생겨난다.

일단 기본 동력을 확보한 아이템들은 가맹점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거나 빠른 속도로 유사업체나 유사브랜드들이 생겨난다. 누가 만들었건 시장에서 고객에게 검증된 아이템들은 시장선점을 위한 속도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아이템을 만들고 본점 또는 안테나샵에서 긍정적이고 충분한 고객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맹점 확산에 대한 속도의 싸움에서 밀리면 속도전에 강한 다른 회사나 타 브랜드에 밀려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창업아이템 제공자에 머무르기 십사이다. 이 부분은 특히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이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대부분의 로컬 프랜차이즈 분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전국 브랜드로 성장을 해보기도 전에 카피업체들에게 추월을 당하고 끝내 로컬브랜드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차별화 시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창업아이템이 고객들의 평가를 거쳐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거나 다양한 브랜드나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한다면 하나의 창업트렌드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로그나 소셜네트워크상에서 고객들이 활발하게 이용후기를 올리고 다양한 언론들의 경계기사가 쏟아지게 된다.

이렇듯 대다수의 창업트렌드는 인위적인 의지나 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마치 패션디자이너들이 시대의 유행을 창출하듯이 창업도 그런 경향이 강한 분야 중 하나다. 다만, 아이템별로 일시적인 유행아이템과 지속가능한 장기아이템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점이 분명 존재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시장과 고객이 해주지만 사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생계형·부업형 창업 방향 등 소개

aT, '식당창업 이렇게 합니다'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청년 창업지침서 첫 번째 시리즈인 '식당창업 이렇게 합니다'를 발간했다.

창업 전 준비단계부터 개업까지 총 9단계로 이뤄진 '식



당창업 이렇게 합니다'는 생계형 창업과 부업형 창업에 대한 방향 설정,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비교, 아이템 모색방법, 식당입지 결정방법,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 개업 등 창업을 준비하면서 실제 필요한 내용이 쉽게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aT는 또 외식컨설팅 사업을 통해 성공한 다양한 사례

를 창업자에게 소개하고 직접 외식사업 현장을 방문, 체험활동과 함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창업자를 위해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aT센터 1층 비즈니스라운지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이 완비된 업무공간을 마련해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관련 책자는 온라인(www.foodbiz.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아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